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자녀 보호

광주시교육청 '그린-i 캠페인' 전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5월 27일(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학부모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3년 연속 25% 이상 증가, 성인용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게임은 전년 대비 각각

9%, 5% 이용증가추세를 보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를 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S/W 개발 사업은 그동안 공공부문(교과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청)과 민간(S/W개발업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교과부·교육청은 예산 지원,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 S/W 보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지원, 홍보 캠페인 계획, 민간업체는 S/W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을 하였다.

특히, 민간업체의 S/W 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사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보급하는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S/W 개발에 참여하되,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은 저소득층 PC지원을 받

는 가정은 ISP(인터넷정보제공자)에서 S/W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홈페이지(www.greeninet.or.kr)를 통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S/W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프로그램 차단 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차단 S/W 보호기능이 제공되며, 유해정보 접속시 SMS 문자서비스,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주기적 컴퓨터 화면 저장 기능 등과 같은 부가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안순일 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유해정보 차단 S/W의 보급으로 인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며,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통해서도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과 동시에 학부모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 지킴이 역할을 끌어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승훈 기자 swan@eduyonhap.com



광주교육청, 서울대 입시설명회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한 '2010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500여명 학부모와 고등학교 진학부장 및 입시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안순일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15일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수능성적 결과에서 광주가 전국 최고였음은 물론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비율에서도 역시 수능 응시자 대비 전국 1위라는 입시 실적을 거두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대입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함인숙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특기자 전형,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한 뒤, 정시모집에 있어서도 일반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대한 입시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였다.

'원격화상영어수업' 확대 시행

미국 와이오밍 주 교사 30명 미국 현지 수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5월 27일(수)에 미국 현지 원격 원어민 교사 30명을 추가로 정규 영어 수업 시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원격 화상 영어수업에는 총 30교 63명의 초, 중등 영어교사가 30명의 미국 현지 원어민 교사와 협력하여 연간 5,280시간의 정규 영어 수업 시간을 진행한다.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미국 현지 원어민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 중 교육정보원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교사들이다. 미국 현지 교사를 화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원격 원어민 교사 채용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규 영어수업에 화상 영어를 적용했으며(10개교 40학급 800명 대상), 그 결과 학생들 10명 중 8명이 상이 학교에서 직접 지도하는 원어민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규 영어 수업 시간에 Co-Teaching(한국교



화상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

사주도로 원어민 교사와 협력 지도)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시도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업은 사전수업협의, 수업, 수업후협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수업안을 작성하여 한국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양국 교사가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정보원 4층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 5명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 30명, 그리고 한국 영어교사 81명을 대상

로 원격 화상 영어에 대한 집중 연구를 추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원장 이용일)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격 화상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히고, 이번 원격 화상 영어 수업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습 참여의 기회를 주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아카데미 '뜨거운 호응'

학생 중심 교육 실천 총력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2009 광주 학부모 아카데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5월 21일 광주시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2009년 제5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회수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는 이날도 안순일 교육감의 특강과 사단법인 한누리나정승 강사의 강좌 등이 이어졌고, 특히 올해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의 나르샤 무용단의 '봄의 향연' 공연도 어우러져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안순일 교육감은 '음악과 인생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1학생 1휴대악기 연주와 광주 학생들은 관소리 한 대목쯤은 부를 수 있어야함을 강조했고 특히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은 음악을 통해서 신장된다"고 역설한 후 즉석해서 하모니카와 오카리나를 연주해 학부모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초청강사로 나선 나정승 강사는 '자기주도학습법, 존재하려는 용기'를 주제로 학부모교육 강좌에서 "자녀가 전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며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관찰해서, 자녀가 관심 분야에 고도로 몰입하는 것을 경계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의 적합한 학습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스스로 학습방법을 찾아 가면서 알아가는 기쁨 곧 '발견학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는 등 초빙강사의 열강 속에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공감과 큰 호응을 얻었다.

시교육청 박정진과장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속에 열리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는 앞으로 2009년도에 4회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자신의 학습욕구 충족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swan@eduyonhap.com

광주 학부모 독서회 걷기 대회 열려

광주 학부모 독서회 총 연합회(회장 이경숙)는 5월 24일 풍암생활 체육 공원에서 광주 학부모 독서회 회원 및 자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빛고를 독서 마라톤 참가자의 완주를 기원하는 걷기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걷기 대회에 빛고를 독서 마라톤 대회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독서 대회로서,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기틀을 만들것자 마련한 홍보 캠페인 자리이다.

광주 학부모 독서회 총 연합회 이경숙 회장은 걷기 대회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지난 대회 때 독서 마라톤 대회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걷기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참가자 모두 완주하도록 독려하고, 다음으로 독서 마라톤을 실제 걷기로 실천해 봄으로써 독서할 때의 인내심과 즐거움을 걷기를 통해 느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시민 독서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4회 빛고를 독서 마라톤 대회는 지난 4월 21일에 시작되어 10월 21일에 종료된다. 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매일매일 읽은 분량에 대한 감상을 빛고를 독서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써 나가기 때문에 독서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범 시민 대회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서부초등 학생회장단 리더십 향상 캠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 관내 초등 학생회장단 89명은 5월 22일부터 의학 광주 정신이 살아 숨쉬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하여 2일간의 리더십 향상 캠프 활동을 실시하였다.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서부교육청 관내 캠프 활동 지도 능력이 뛰어난 교사 5명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한 이번 캠프는 놀이, 게임, 발표력 향상, 자기 자량,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 등산 등의 활동을 통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www.tyuckandpaint.com
전국 1688-0389

“휴나로 꾸미는 공간은 자연이 됩니다”

휴나
휴나
휴나

친환경 토탈솔루션 휴나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의 방출억제 및 분해기능으로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 공해병을 예방하고 자연소재를 사용한 건강자재로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케인트입니다.
자연으로 꾸미는 아름다운 공간 - 벽산페인트 휴나